기업

부산국제금융진흥원, ‘2026 BFC 음악회’ 개최…금융에 문화 향기를 채운다

남궁선희 기자 namkung.sunhee@mkinternet.com

입력 : 2026-03-26 09:00:00

< 사진 제공 : 부산국제금융진흥원 >

부산국제금융진흥원(원장 이명호)이 부산 시민과 BIFC 임직원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‘2026 BFC 음악회’를 연중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낮 12시 15분부터 30분간 BIFC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이 정기적인 문화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. 정기 공연은 인근 직장인뿐만 아니라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.

부산시립예술단이 공연에 참여하며, 현악 4중주와 금관·목관 5중주 등 클래식 실내악과 더불어 국악부터 합창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장르를 선보인다.

올해는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도 마련된다. 세계 각국의 금융 리더들이 모이는 세계국제금융센터연합(WAIFC) 연차총회와 국제금융센터지수(GFCI) 런칭 심포지엄 등 주요 국제 행사 기간에 특별 공연을 배치했다.

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“BFC 음악회가 시민들에는 일상 속 작은 선물이 되고 BIFC가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과 금융의 복합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바란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”라고 전했다.